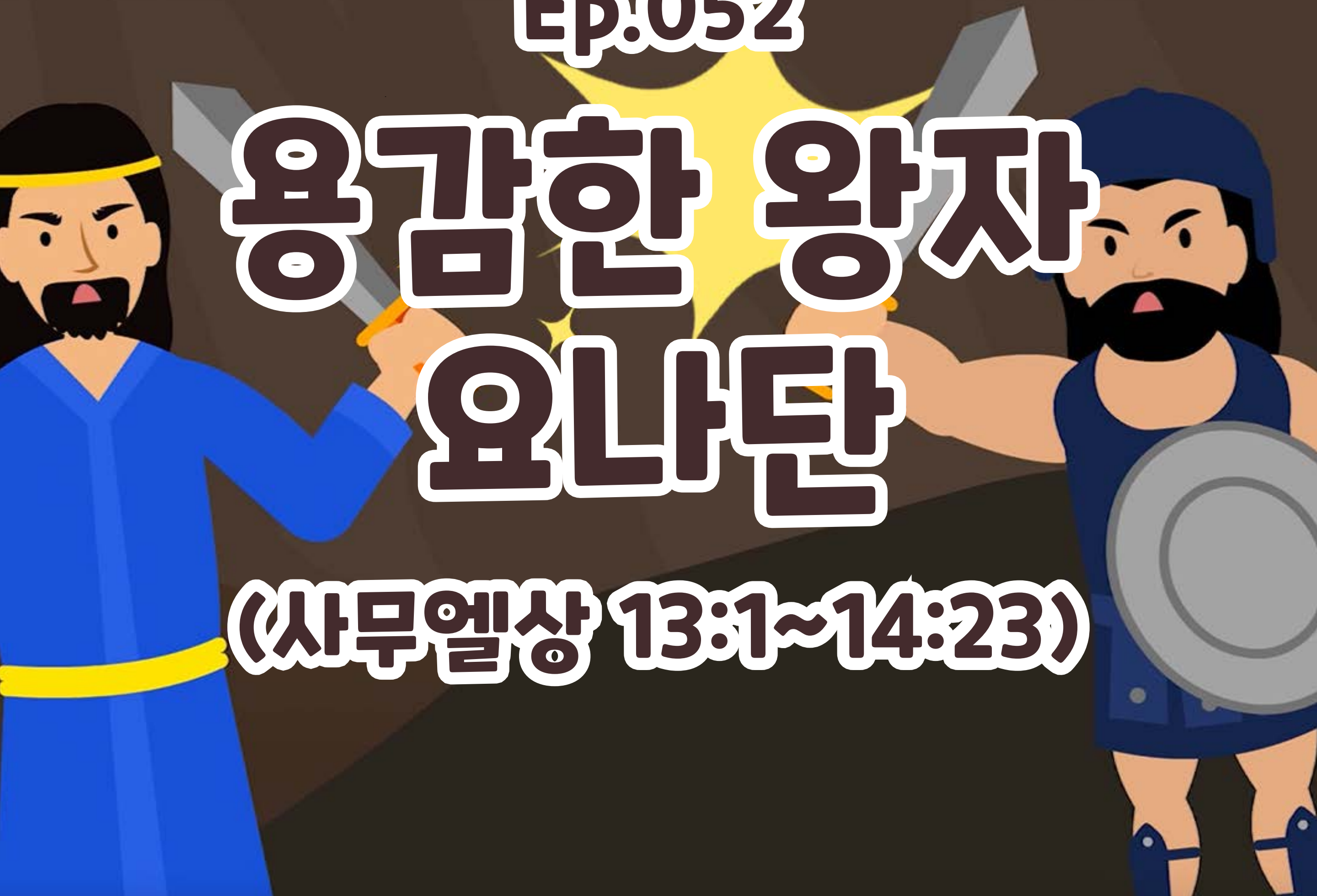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52

용감한 왕자 요나단

(사무엘상 13:1~14:23)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 왕자는 무척 젊었지만 성품이 용맹스러웠죠.

**“블레셋 같은 포악한 녀석들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돼.
가만 놔두면 언젠가는 또 우리 땅을 쳐들어올 거라구.”**

요나단은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고 블레셋의 군대를 기습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이
대규모의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차가 삼만 대, 말을 타는 군인만 육천 명이 모였고
모든 군사들을 다져보면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수가 정말 많았죠.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삼천 명에
불과했어요.

변변한 칼이나 창도 턱없이 부족했죠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럴 땐 왕이고 뭐고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일세!
어디로 숨어야 잘 숨었단 소릴 들을까?”**

**백성들은 컴컴한 동굴 속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바위틈과 구덩이
심지어 우물 속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기로 했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일주일 안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약속한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기다리던 사무엘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점점 초조해졌죠.

**“허... 블레셋 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데.
선지자께서는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 결국 사울 왕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제물을
나에게로 가져오거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어서!”**

그렇게 사울 왕은 제물을 태워서 직접 하나님께 바쳤어요.
오직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만 제물을
바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오랜 약속을
사울왕이 확고에 깨버린 거였죠.

그렇게 제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마침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아, 아니... 왕이시여
지금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사우엘의 화난 표정을 본 사울 왕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구, 군사들은 겁에 질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선지자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왕께서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왕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더라면
대대손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의 통치가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사울 왕이 후회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었죠.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남아 있는 군사들은
고작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왕자 요나단이 아끼는 부하
한 명을 불렀어요.

**“잘들어, 너랑 나랑 둘이서
아버지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실거야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가 많은 적들 간에
그분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거든.”**

**“예, 왕자님 뜻대로 하시지요.
왕자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어? 저게 뭐야? 사람 아니야?
저거 이스라엘 녀석들인데?”

“어?, 그렇구만 틀림없어! 다들 저기 좀 보시오!
구멍 속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녀석들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오고 있소이다!”

“고작 두 명? 오냐 이 놈들, 어서 와보라
본대를 보여줄것이니! 헤헤.”

그 말을 들은 요나단과 부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블레셋 군사가 나타나면, 앞장서고 있던 요나단이
해치워버리고 요나단의 부하도
뒤에서 용감하게 싸웠죠.

그렇게 두 사람이서 무려 스무 명이 넘는
블레셋 군사들을 해치워버렸어요!

**“뭐, 뭐야 저 녀석들! 왜 우리 군사들이
힘 한 번 못 쓰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지?”**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나단이 말 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거였죠.

**“아이고, 땅 개진다, 땅 개져!
누가 나 좀 살려줘요!”**

갑작스러운 지진에 블레셋 군사들은 여기저기
도망가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왕이시여, 블레셋 군사들이 이상합니다.
다들 이리저리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하면
도망치다 넘어져 밟히는 자들도 있다 하옵니다!”

“뭐, 뭐라?”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사울 왕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군대에서
빠져나간 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잠시 후

**“왕이시여~! 헉헉.
요나단, 요나단 왕자님이었습니다!
왕자님께서 탈랑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셨습니다!”**

신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보니 모든 게 사실이었죠.

혼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고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수풀 사이로 도망치기 바빴어요.

사울의 군대가 남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그토록 강해 보였던 블레셋이
이렇게 겁쟁이 군대가 되어버리다니!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 왕자 덕분에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